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 6, pp. 183-193, 2019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6.183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직업 가치관과 전공만족도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지재훈[1], 허성은[2*]
[1]동의과학대학교 의무행정과 교수, [2]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The Effects of Work Value and Major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ae-Hoon Ji[1], Seong-Eun Heo[2*]
[1]Professor, Department of Medical Administration,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2]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ill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직업 가치관과 전공만족도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B 지역 내 치위생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후 SPSS 24.0 및 AMOS 24.0 프로그램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외재적 직업 가치관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의 효과와 매개변수인 전공만족도에 부(-)의 효과가, 내재적 직업가치관은 전공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의 효과가 있음이 검정되었다. 또한, 외재적 직업 가치관과 내재적 직업 가치관은 전공만족도를 매개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이는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직업 가치관 형성과 전공 만족 수준을 높여야 함을 시사하며,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진로 및 교육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치위생 전공, 외재적 직업가치관, 내재적 직업 가치관,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work value and major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 survey was conducted on dental hygiene students of a university in B area, an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24.0 and AMOS 24.0 program. The extrinsic work valu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directly and a negative effect on the major satisfaction, a mediator. The intrinsic work valu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major satisfaction directly. Additionally, extrinsic and intrinsic work values had an indirect effect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rough major satisfac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form desirable work values and increase the level of major satisfaction in order to improv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ould be used as fundamental data for setting a career and education dire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Key Words : Dental hygiene major, Extrinsic work value, Intrinsic work value,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orresponding Author : Seong-Eun Heo(gjtjddms0928@naver.com)
Received May 13, 2019 Revised May 29, 2019
Accepted June 20, 2019 Published June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식의 융·복합적 혁신은 오늘날 직업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와 사회조직은 보다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1]. 이에 따른 대학에서의 전공과 관련된 개인의 역량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1],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진로 방향 및 직업과 관련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대학 시기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 시기라 할 수 있다[1–3]. 즉, 대학 시기의 직업 가치관 정립과 전공 학습을 통한 진로발달은 개인의 인생 전반에 걸친 모든 활동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1,2,4], 전공에 대한 만족은 대학 졸업 후 인생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5]. 따라서 오늘날 직업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 역량 강화에 있어서 전공 만족도는 직업 가치관과 함께 진로에 대한 확신과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1,6]. 즉,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나타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직업 가치관과 전공만족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7–9]. 직업 가치란 직업에 대한 태도와 개인의 신념으로 직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의미하며[7,10,11], 직업 가치에 대한 인식이 직업 활동의 본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대학 시기의 직업 가치관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2]. 또한, 직업가치관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대학에서의 전공과 관련된 진로교육에 있어서 직업 가치관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이다[10,12,13]. 대학시기의 전공에 대한 만족은 학업에 대한 흥미와 적극적인 학교생활은 물론, 취업을 위한 준비 행동과 취업 후의 진로 및 직업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6,7,14]. 그러나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개인의 만족과 신념에 따라 전공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15], 특히 진로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직업 가치관 확립을 통한 전공만족도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16]. 치과위생사는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강 보건 전문 인력으로서 직업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진정한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6,17]. 4차 산업 시대에 따른 사회조직의 변화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다양한 역할 수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직업윤리 및 진로와 관련한 전문 직업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18]. 특히,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치위생 전공에 대한 전공만족도와 직업 가치는 직무수행과 같은 미래 직업 활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업 활동의 본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6]. 또한, 치과위생사로서의 긍정적 직업 정체성은 치과위생사 직무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안정적인 직업 활동이 가능하게 되므로[19], 구강 보건 전문 인력으로써 질 높은 구강 보건 서비스 제공은 물론,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결국, 미래의 직업에 대한 태도가 전공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에 따라 치위생 전공 관련 진로 교육에 있어서 치과위생사에 대한 긍정적 직업 가치 인식을 제고한다면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으로 직업적 가치의 확립은 물론, 진로 결정의 확고한 동기부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5,9]. 따라서 치과위생사에 대한 바람직한 직업가치관을 함양하고, 직업 현장에서 가치 있는 인력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질의 치위생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18]. 최근, 경제발달로 인한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대학생의 의식구조는 물론, 직업 가치관에 대한 혼란을 가져와 진로 결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7,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노력은 물론 진로 교육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 시기에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20]. 즉,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높아짐에 따라[7], 확고하게 정립된 직업 가치관과 높은 전공만족도를 통한 개인 역량강화로 창의적·통합적 인재로써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직업 가치관과 전공만족도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치위생 교육은 물론 치과위생사 직업의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진로 및 교육 방향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치과위생사 직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이 전공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전공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치위생 교육 및 치과위생사의 직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B 지역 내에 위치한 치위생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보장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2019년 3월 11일부터 3주간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G*power Ver3.1을 이용하였으며, 적정 표본 수는 다중 회귀분석을 위한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 0.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05, 예측변수의 수를 3로 하였을 때 119명으로 계산되었다. 하지만 응답자에게서 오는 Bias 즉, 설문지 회수율 및 불성실한 응답 등을 고려하여 약 35%를 추가하여 162명을 설문대상으로 선정하여 회수된 170부의 설문지 중 성실히 답변한 16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실증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직업 가치관과 전공만족도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모델을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2.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2.3.1 직업 가치관

직업 가치관은 한[7]이 사용한 연구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외재적 직업 가치관 4문항, 내재적 직업 가치관 4문항으로 총 8문항을 구성하여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직업 가치관 점수를 산출하였다. 외재적 직업 가치관은 직업에 있어서 물질적 보상 및 일신상의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내재적 직업 가치관은 직업에 있어서 일에 대한 흥미나 자율성, 인간관계 및 봉사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말하며[21], 외재적 직업 가치관과 내재적 직업 가치관의 각 점수를 평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직업 가치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외재적 직업 가치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α= 0.695, 내재적 직업가치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α= 0.642로 측정 도구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2 전공 만족도

전공만족도는 강[22]이 개발한 연구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전공이 마음에 드는지, 전공 분야가 자신의 진로를 실현하는데 잘 맞는지에 대한 내용을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공만족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전공만족도는 대학생의 진로, 직업기준 등 주관적 감정은 물론 긍정적 사고가 결합된 인지적 평가의 개념으로[1], 각 항목을 평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와 잘 맞으며, 전공 분야에 대한 심리적 애착과 긍정적 태도를 바탕으로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공만족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α= 0.844로 측정 도구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3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이기학과 이학주[23]가 수정·보완하여 타당성을 입증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진로 결정에 요구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는지에 대한 신념정도를 측정하는 5개 하위 요인인 정확한 자기평가, 직업정보 수집, 미래 계획수립, 문제 해결, 목표 선택에 대한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점수를 산출하였다.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적용으로 진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며[24], 각 항목을 평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5개 하위 요인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자기 평가 Cronbach's Alpha α= 0.687, 문제 해결 Cronbach's Alpha α= 0.628, 미래 계획수립 Cronbach's Alpha α= 0.637, 목표 선택 Cronbach's Alpha α= 0.684, 직업정보 수집 Cronbach's Alpha α= 0.627로 측정 도구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4.0(ver.)및 AMOS

24.0(ve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모형 내 주요 변수들의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끝으로, 실증 모형 내 포함된 변수들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 AMOS를 이용하여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150명(92.6%)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력은 학년별로 대략 25%의 비율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	Category	n(%)
gender	Male	12(7.4)
	Female	150(92.6)
Grade	grade 1	40(24.7)
	grade 2	40(24.7)
	grade 3	39(24.1)
	grade 4	43(26.5)
Total		162(100.0)

3.2 모형 내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실증 모델에 포함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종속변수인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5개의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직업정보는 원인변수들 가운데 외재적 직업 가치관이 가장 큰 정(+)의 관련성이 있었고 내재적 직업 가치관, 전공만족도 순으로 정(+)의 관련성을 보였다. 목표선택, 계획수립, 자기평가에는 내재적 직업 가치관, 외재적 직업 가치관, 전공만족도의 순으로 정(+)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문제해결은 내재적 직업 가치관, 전공만족도, 외재적 직업 가치관의 순으로 정(+)의 관련성이 있었다.

3.3 직업 가치관과 전공만족도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이론적 구조모형은 외생변수 2개와 내생변수 총 6개로 구성되며, 실증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AMOS ver.24.0을 활용하여 변수 간 인과관계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적절한 설명 여부와 모형이 경험 자료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구모형 적합도 평가를 시행하였다.

초기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정 결과는 Fig. 2와 같으며,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표들이 대체로 적극 수용범위에서 벗어나는 지표들이 많았고 각 경로들의 C.R값들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와 각 변수의 경로인 C.R(Critical Ratio)값을 기준으로 최적의 적합도 지수를 보이는 Fig. 3과 같은 수정모형을 도출하였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factors

Variable	Occup. Information	Goal Selection	Making Plans	Problem Solving	Self-Appraisal	Major Satisfaction	External Occup.Vale	Internal Occup.Vale
Occup. Infomation	1							
Goal Selection	.563**	1						
Making Plans	.645**	.577**	1					
Problem Solving	.371**	.376**	.380**	1				
Self-Appraisal	.622**	.606**	.668**	.475**	1			
Major Satisfaction	.228**	.160*	.246**	.247**	.255**	1		
External Occup.Vale	.343**	.297**	.294**	.237**	.332**	.179*	1	
Internal Occup.Vale	.331**	.604**	.298**	.261**	.344**	−0.118	.40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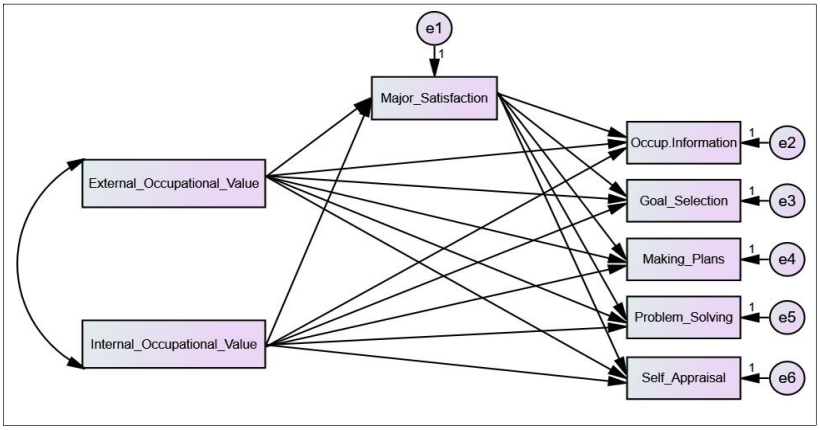

Fig. 2. Basic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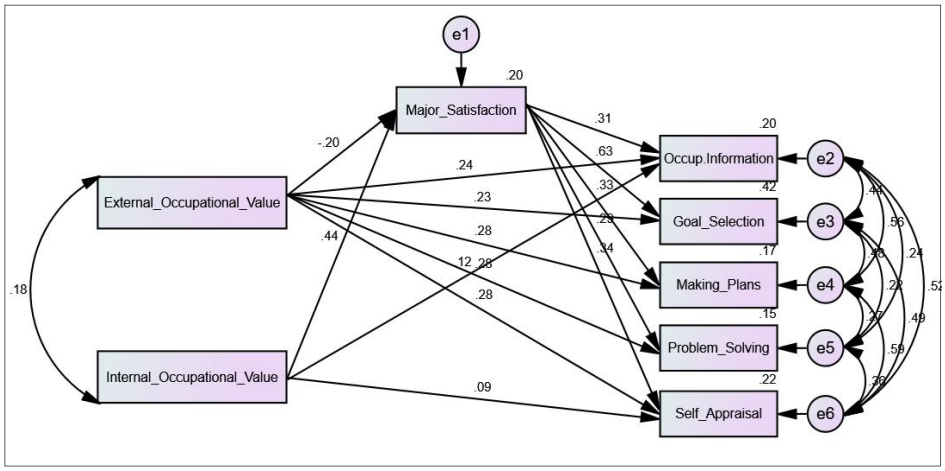

Fig. 3. Modification model

3.4 최종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의 수정모형의 적합지수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절대 적합지수 중 가장 기초적이고 먼저 파악해야 하는 평가지수인 χ2값은 4.169, 자유도(df)는 3, p값은 .244로 수정모형의 경로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절대 적합지수는 GFI와 RMSEA로 GFI의 경우 회귀분석의 R2과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0.9이상의 경우를 모형이 좋다고 판단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993으로 적합도가 우수함을 알 수 있다. RMR과 RMSEA는 0.05이하의 값을 가지면 모형이 우수하다고 평가하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006, .050으로 나타나 기준에 부합된다. 본 연구의 증분 적합지수인 NFI, CFI, IFI, RFI의 결과값은 차례로 .991, .997, .997, .917로 모든 값이 1에 가까운 값이므로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간결적합지수로 PGFI, PNFI의 값이 .083, .106로 나와 적합도 기준에서 벗어나지만, 대부분의 지표가 수용할만한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3.5 모형의 인과관계 분석

경로 분석은 각 요인 간 경로의 유의성에 주안점을 두는 분석 방법이다. 최종 경로 모형의 적합도 지표가 수용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총 2개의 외생변수와 6개의 내생변수의 경로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외재적 직업 가치관에서 직업 정보로의 경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내재적 직업 가치관에서 자기평가로의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로의 유의성만을 볼 때, 전공만족도는 목표선택에 C.R.값이 10.176으로 가장 큰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다음은 내재적 직업 가치관이 전공만족도에 가장 큰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고(C.R.=5.975), 전공만족도가 자기평가(C.R.=4.486), 미래계획(C.R.=4.460), 직업정보(C.R.=3.991), 문제해결(C.R.=3.905)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경로 분석 결과에서 특이점은 외재적 직업 가치관은 전공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검정 되었다.

Table 3. Modification model fit index

Fit index	Measured value	Acceptance standard	Result
1. Absolute Fit Measures			
·χ2 (p−value)	4.169(p=.244)	p>0.05	−
·CMIN/DF	1.390	3≥	accept
·GFI	.993	0.9≤	accept
·AGFI	.920	0.9≤	accept
·RMR	.006	0.05≥	accept
·RMSEA	.050	0.05≥	accept
2. Incremental Fit Measures			
·NFI	.991	0.9≤	accept
·CFI	.997	0.9≤	accept
− IFI	.997	0.9≤	accept
− RFI	.917	0.9≤	accept
3. Parsimonious Fit Measures			
·PGFI	.083	0.6≤	accept
·PNFI	.106	0.6≤	accept
Sample Size	154		

Table 4.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a set of factors

Classification			Estimate	S.E.	C.R.	p
Major Satisfaction	←	External Occupational Value	−0.196	0.100	−2.672	0.008
Major Satisfaction	←	Internal Occupational Value	0.439	0.099	5.975	0.000
Occup. Information	←	External Occupational Value	0.244	0.069	3.280	0.001
Goal Selection	←	External Occupational Value	0.235	0.067	3.781	0.000
Occup. Information	←	Internal Occupational Value	0.123	0.061	1.881	0.060
Occup. Information	←	Major Satisfaction	0.312	0.054	3.991	0.000
Goal Selection	←	Major Satisfaction	0.631	0.049	10.176	0.000
Making Plans	←	Major Satisfaction	0.331	0.052	4.460	0.000
Problem Solving	←	Major Satisfaction	0.294	0.058	3.905	0.000
Self −Appraisal	←	Major Satisfaction	0.344	0.054	4.486	0.000
Making Plans	←	External Occupational Value	0.285	0.070	3.836	0.000
Problem Solving	←	External Occupational Value	0.282	0.079	3.748	0.000
Self −Appraisal	←	External Occupational Value	0.281	0.07	3.833	0.000
Self −Appraisal	←	Internal Occupational Value	0.087	0.058	1.438	0.151

3.6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본 연구는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직업 가치관과 전공만족도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으로 특히,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모형 내 포함된 변수들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첫째, 종속변수인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선행 변수들의 직접 효과를 살펴보면,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수인 문제해결, 계획수립, 목표선택, 직업정보, 자기평가에 매개변수인 전공만족도가 통계적으로 가장 큰 정(+)의 직접 효과가 있었고, 외재적 직업 가치관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수인 문제해결, 계획수립, 목표선택, 직업정보, 자기평가에는 유의한 정(+)의 효과, 매개변수인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직접 효과가 있음이 검정되었다. 또한, 내재적 직업 가치관은 전공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으나 종속변수인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수 5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 Table 5에서 직업정보에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간접 효과 결과를 살펴보면 내재적 직업 가치관과 외재적 직업 가치관은 전공만족도를 매개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간접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총 효과의 크기를 살펴보면, 문제해결과 계획수립에서는 전공만족도, 외재적 직업 가치관, 내재적 직업 가치관의 순이었고, 목표선택, 직업정보, 자기평가에서는 전공만족도, 내재적 직업 가치관, 외재적 직업 가치관의 순으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5. Direct, Indirect, Total Effects

Classification	Effects	Internal Occupational Value	External Occupational Value	Major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Total	0.439	−0.196	0
	Direct	0.439	−0.196	0
	Indirect	0	0	0
Problem Solving	Total	0.129	0.224	0.294
	Direct	0	0.282	0.294
	Indirect	0.129	−0.058	0
Making Plans	Total	0.145	0.220	0.331
	Direct	0	0.285	0.331
	Indirect	0.145	−0.065	0
Goal Selection	Total	0.277	0.111	0.631
	Direct	0	0.235	0.631
	Indirect	0.277	−0.124	0
Occup. Information	Total	0.260	0.183	0.312
	Direct	0.123	0.244	0.312
	Indirect	0.137	−0.061	0
Self Appraisal	Total	0.238	0.214	0.344
	Direct	0.087	0.281	0.344
	Indirect	0.151	−0.068	0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직업 가치관과 전공만족도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관계와 직·간접 효과를 통해 규명하여, 직업 가치관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였다. 연구목적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로 분석을 통한 각 요인 간 경로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내재적 직업 가치관은 전공만족도에 가장 큰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지만 외재적 직업 가치관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는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5개 하위요인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전공만족도는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 중 목표선택에 가장 큰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내재적 직업 가치관이 전공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정[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직업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가진 학생일수록 학과 과정에 대한 만족으로 전공을 통한 능력 발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오 등[3]의 연구 결과가 내재적 직업 가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 의미를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의 외재적 직업 가치관이 전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한 결과였다[10]. 이는 내재적 직업가 치관을 가진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경우 외재적 직업 가치관을 가진 학생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16]. 결국, 사회에 대한 봉사의 의미로 직업적 보람을 찾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으로 자신의 진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1,21], 직업에 대한 확신과 확고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가치관을 살펴보았을 때 이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즉, 내재적 직업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외재적 직업 가치관을 가진 사람보다 진로의식에 있어서 그 수준이 높으며, 진로 의식이 성숙될수록 직업에 대한 내적 가치를 선호함에 따라[25,26],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진로 교육에 있어서 직업 가치관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이며[13] 특히,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구강 보건 전문 인력을 양성을 목표로 하는 치위생 교육에 있어서 내재적 직업 가치관 향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의 사회봉사활동 경험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에 관한 허[27]의 연구 결과, 봉사활동 경험이 있을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전공과 관련성이 있을 경우 전공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공 관련 봉사활동이 진로에 대한 가능성을 스스로 찾을 기회를 제공하여 내재적 직업 가치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6], 이를 통한 전공에 대한 확신과 전공만족도 향상은 진로 결정의 확고한 동기부여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6]. 이는 실제로 본 연구 결과, 전공만족도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 만족도가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확고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는[14], 목표선택에 가장 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한 등[28]의 연구와 일치하며, 전공만족도를 통한 능력 발휘 및 취업 기회에 대한 만족이 진로 결정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오 등[3]의 연구 결과와 의미를 같이 할 뿐 아니라 치위생(학)과 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 결정 태도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김[29]의 연구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하지만 다른 보건 계열과 비교하였을 때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16], 이직 및 경력 단절 등의 구강보건 전문 인력의 손실로 인한 국민의 구강 보건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12,16]. 이는 전공 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을수록 학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김 등[3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치위생(학) 전공에 대한 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 인식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통한 전공 및 진로에 대한 확신과 진로 결정의 확고한 동기부여는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은 물론 치과위생사로서 성공적인 직업활동을 통한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31]. 결국, 대학 시기는 진로 교육을 통해 진로에 대한 주도성과 자신감으로 향후 진로에 대한 과제를 충실히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므로[32], 치위생 전공 교육에 있어서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내재적 직업 가치관의 중요성에 대한 진로 교육은 물론 학습 방법 및 학습 분위기 조성 등 학교 및 학과 차원에서의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모형 내 포함된 변수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효과, 매개변수인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반면, 내재적 직업가치관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이르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효과가 있었다. 결국, 직업 가치관과 전공만족도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점적으로 검증한 결과, 내재적 직업가치관과 외재적 직업가치관 모두 전공만족도를 매개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간접효과가 있음이 검정되었다. 이는 내재적 직업

가치관이 전공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였으나 직업가치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던 정[10]의 연구와 정확하게 일치한 결과이며, 직업가치관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윤[33]의 연구결과 내재적 직업가치관이 학업적응, 사회적응, 대학환경 적응에 해당하는 모든 대학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는 내재적 직업가치관이 바로 확고한 진로 결정에 대한 신념에 이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 아니라, 내재적 직업가치관이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치위생 전공 교육에 있어서 치과위생사에 대한 긍정적 직업 가치 인식을 제고한다면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과 만족으로 직업 가치관 확립은 물론, 진로 결정의 확고한 동기부여로 진로에 대한 확신과 신념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에 대한 바람직한 직업가치관을 함양하여 직업 현장에서 가치 있는 인력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양질의 치위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직업가치에 있어서 물질적 보상과 일신상의 안정에 크게 좌우되지 않을 때 전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21], 치위생 전공과 관련한 진로 교육 시 전공을 통해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근원적인 탐색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내재적 직업가치관을 포함한 진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10]. 이는 치과위생사의 내재적 직업가치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여 전공만족도 향상은 물론 향후 치과위생사로서의 직업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치위생(학)과의 전공교육에 있어서 직업가치관을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개발은 물론 전공 관련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전공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심어준다면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강보건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6]. 이에 본 연구결과가 치위생 전공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치위생 교육 및 치과위생사의 직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부대학의 치위생 전공 대학생으로 제한된 표집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각 지역별, 학년별로 구분하여 진로 교육 내용 및 교과과정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직업가치관 및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자긍심 향상을 위한 치위생 교육의 방향과 전문 직업인으로써 치과위생사의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REFERENCES

[1] K. C. Han. (2017). *An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Job-Search 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s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Job-Seeking Stress and Ego-Resilience.* Unpublished doctoral thesis, Seoul Venture University, Seoul.

[2] S. M. Im. (2012). *A Study on the major satisfaction and the effect on decision on the course to take of students in security related maj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gin University, Gyeonggi.

[3] C. H. Oh & H. J. Kim. (2016). The Effect of job-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Specializing in Taekwondo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Journal of Matirial Arts, 10(2),* 91-109.

[4] K. M. Nam. (2008). *A Study on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of Academically Talented High School Mal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5] B. W. Kim & K. H.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9(1),* 311-333.

[6] Y. K. Au. (2011). The relation between the career counseling activity,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ation: Regulating effect of decision-making criterion for major.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2(2),* 1793-1811.
DOI : 10.15703/kjc.12.5.201110.1793

[7] K. C. Han. (2014).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r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Kyungsung University, Busan.

[8] K. H. Kim et al. (2009). *School Counseling.* Seoul : Hakjisa Publishing.

[9] J. U. Kim & H. H. Kim.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Level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Barrie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2),* 619-637.

[10] M. J. Jeong. (2018).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Level in the Relations Between Intrinsic· Extrinsic Work Values and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11] E. Lim, B. K. Park & J. S. Hyun. (2012). Work Value Shift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2001 to 2011.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3),* 19-37.

[12] E. Y. Jeong & J. K. Kim. (2013). A study on work value factors and professional attitude factors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par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3(3),* 439-448.
DOI : 10.13065/jksdh.2013.13.3.439

[13] H. S. Park. (2011). A Study on the Work Value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Health Care Man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5(4),* 95-111.
DOI : 10.12811/kshsm.2011.5.4.095

[14] J. Y. Jeong. (2013). *The analysis on the casual model between university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occupational satisfaction mediated by occupational value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15] M. S. Choi, Y. H. Jang & H. K. Yun. (2014).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self-efficiency on the satisfaction with maj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2(2),* 155-162.
DOI : 10.13065/jksdh.2014.14.02.155

[16] S. N. Lee & E. S. Kim. (2015).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Occupational Value on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8),* 5304-5313.
DOI : 10.5762/KAIS.2015.16.8.5304

[17] J. H. Park, H. J. Song & B. Y. Lee. (2018). The Influences of Ethical propensity, Self-esteem and Clinical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6),* 261-269.
DOI :10.15207/JKCS.2018.9.6.261

[18] E. Y. Jeong & J. K. Kim. (2013). A study on work value factors and professional attitude factors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par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3(3),* 439-448.
DOI : 10.13065/jksdh.2013.13.3.439

[19] R. P. Abelson. (1988). Conviction. *American Psychologist, 43(4),* 267.
DOI : 10.1037/0003-066X.43.4.267

[20] A. Bandura & D. H. Schunk.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3),* 586.
DOI : 10.1037/0022-3514.41.3.586

[21] A. L. Kalleberg. (1997). Work values and jib reward: A theory of job satisf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1),* 124-143.
DOI : 10.2307/2117735

[22] M. S. Kang. (2015). *The influence of undergraduate students' self-directedness and major satisfaction up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employability.* Unpublished doctoral thesis, Hanseo University, Chungnam.

[23] K. H. Lee & H. J. Lee. (2000).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1),* 127-136.

[24] K. H. Kim. (2019).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Flow, Academic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Key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Daejin University, Gyeonggi.

[25] E. M. Gade & G. Peterson. (1977). Intrinsic and extrinsic work values and the vocational maturity of vocational-technical student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6(2),* 125-130.
DOI : 10.1002/j.2164-585X.1977.tb00959.x

[26] Phyllis Post-Kammer. (1987). Intrinsic and extrinsic work values and career maturity of 9th-and 11th-grade boys and girl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5(8),* 420-423.
DOI : 10.1002/j.1556-6676.1987.tb00746.x

[27] S. E. Heo. (2016). Convergence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Service Experienc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4),* 299-305.
DOI : 10.15207/JKCS.2016.7.4.085

[28] H. W. Han & K. S. Moon. (2017). The Effect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ediating role of Academic Emotion. *Journal of Lead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8),* 845-866.
DOI : 10.22251/jlcci.2017.17.18.845

[29] S. Y. Kim. (2016).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in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Decision Attitud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6(4),* 115-122.
DOI : 10.22156/CS4SMB.2016.6.4.115

[30] J. S. Kim & D. Y. Lee. (2014). A Study on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y Majors in Gyeong-sang Provi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8),* 389-396.
DOI : 10.14400/JDC.2014.12.8.389

[31] G. Y. Choi & D. H. Lee. (2019).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 Efficacy, Learning Flow, Academic Achievement, and Department adjustment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1),* 299-305.
DOI : 10.15207/JKCS.2019.10.1.299

[32] J. C. Lee. (2013). Theoretical Study and Comparison Analysis of Research Results on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rr, 3(1),* 49-66.

[33] J. Y. Yun. (2014). A Study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Junio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cience.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23(2),* 111-132.

지 재 훈(Jae-Hoon Ji) [정회원]

· 2000년 2월 : 인제대학교 보건관리학과 (보건학사)
· 2005년 8월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10년 8월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동의과학대학교 의무행정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통계, 보건정보, 병원경영
· E-Mail : infohun@hanmail.net

허 성 은(Seong-Eun Heo) [정회원]

· 2010년 8월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경영학과(보건학석사)
· 2015년 2월 :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11년 8월 ~ 2014년 12월 : 동주대학교 치위생과 겸임 교수
· 2015년 2월 ~ 현재 :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구강보건, 치위생 융합 연구
· E-Mail : js1424@silla.ac.kr